

번호 19-3

제 목	국 문	연변지역 농촌 주민의 의료요구도와 합작의료제도 개발을 위한 연구		
	영 문	A Study on Reconstruction of Cooperative Medical Care System and Demand of Health Care in Yanben Area, Chin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문옥륜, 이상구, 하호수, 이신재, 윤태호, 이윤현, 김남순, 정백근, 최순애, 황경화, 문용*, 박송림**, 장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북경의과대학*, 연변대학 의학원**		
	영 문	Ok Ryun Moon, Sang Gu Yi, Ho Soo Ha, Sin Jae Lee, Tae Ho Yoon, Yoon Hyeon Lee, Nam Soon Kim, Bak Keun Jeong, Soon Ye Choi, Kyung Hwa Whang, Wen Yong*, Piao Song Lin**, Jhang Jing H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eijing Medical University*, Yanben Medical College**		
분 야	관리	발 표 자	이 상구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0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1999 년 10 월			

1. 연구 목적

모택동 이후 중국 농촌의 의료제도는 집체농장에 근거를 둔 농촌합작의료제도가 기본이었다. 그러나, 등소평의 시장경제와 개방정책에 따라 협동농장의 '맨발의 의사'를 중심으로 행해지던 국영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도 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경제개발 및 시장경제의 육성은 연안도시와 내륙 농촌간의 심각한 빈부의 격차가 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농촌주민들의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체 인구의 80%인 농민의 의료보장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자문과 도움 및 중국내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연변대학 의학원과 연계하여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농촌 보건,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하기로 하여, 합작의료의 재건을 포함한 의료보장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중국 연변지역 농촌의 의료요구의 파악, 둘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작의료의 형태에 대한 조사, 셋째,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시범사업의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먼저, 중국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합작의료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하여 조사한 후, 연변자치주 위생국의 자료를 근거로 연변의학원의 교수들과 협의하여 설문지의 내용과 조사방법을 정하였다. 한국의 연구원 12인이 중국을 방문하여, 연변의학원 교수 및 학생들과 같이 지역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치주의 1개 향(우리 나라의 군에 해당)을 선정하여 향의 11개 촌 중 무작위로 4개 촌의 277가구의 주민들의 건강상황, 질병 및 생활양상, 보건의식 행태 등의 기초조사와 보건, 의료 이용 실태조사, 합작의료에 대한 의식 및 실시방향, 향후 바람직한 의료의 도입형태 등에 관하여 물었다. 관찰 시 위생국 관리와 향의 대표, 위생원장과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2개 지역의 향 위생원을 방문하여 운영상태와 재정상황,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2차(시병원), 3차(대학병원)의 운영 현황과 진료 실태 및 연변자치주 사회보험국의 대상으로 의료보험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EXCEL과 SAS 6.02 로 통계처리 하였다.

3. 연구결과

조사대상지역은 두만강을 끼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92.5%가 농민이다. 이들의 가구당 평균 수입은 1년에 7000위안 정도였으며, 의료비로는 월 50위안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현재 의료 이용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고가의 의료비와 약가였다. 이로 인해 무자격자에 의한 매약과 자가 투약의 비율이 높았다.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여 향후 보건, 위생교육이 중요하게 요구되었다. 농촌합작의료를 실시할 경우 참가하겠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53.5%였고, 국가의 지원이 있을 경우 90%이상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77%이상의 주민이 국가에서 50%이상을 분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보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진료비나 약가의 보장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1차 의료의 중심이 되어야 할 향 위생원은 1년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60%이상이었고, 이용하지 않은 이유도 향위생원의 위치를 모르거나 진료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범지역 위생원들의 경우 주민들의 이용도나 인식도가 높고, 책임경영제도에 의한 경영혁신으로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어 대조적이었으며, 발전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연변지역에서는 기본적인 농촌시범보건사업 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월청진 위생원을 활성화 시켜 1차 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의 보건사업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소견을 근거로 하여 향후 시 정부 및 자치주 정부와 재원조달 방안 및 분담비율을 협의한 후 합작의료 재건의 형태로 농촌지역의 의료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4. 고찰

중국의 농촌은 우리 나라의 60, 70년대와 유사한 보건수준과 의료문제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농촌시범 보건사업 및 의료보험사업의 경험이 유용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자문 및 도움은 조선족들의 중국 내 위상제고와 한국형 의료보험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중국 농촌의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한족의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 등의 다른 여건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견을 일반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같은 농촌지역이라도 지역에 따라 경제상황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합작의료를 진행할 경우 여기서 얻어지는 경험은 향후 남북통일에서 북한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모델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